

어린이: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달라이라마: "누구에게나 사랑의 씨앗이 감춰져 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씨앗을 키워 꽃피게 할 수 있어... 내가 말하는 사랑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에 해당하는 거야.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게임에 대한 사랑에 차이가 있을까? 아니, 전혀 없단다...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느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수도승들은 남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개발하고 키우는 수업을 한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번쯤 아이들이 불쑥 던진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 채, 한동안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끊임없는 질문에 짜증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의 호기심을 한껏 부추켜 예디슨과 같은 과학자로 키웠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기도 한다.

<아이들이 묻고, 노벨상 수상자들이 답한다>는 제목 그대로 아이들의 질문에 세계 최고 석학이자 정신적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꾸며진 책이다.

무언가에 대해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증거다. 다시 말하자면 질문은 삶의 원동력이다. 특히나 세상에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아이들의 질문은 더욱더 그러하다. 단순하게만 느껴지는 아이들의 질문은, 그저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아이들의 상상력에 날개를 달고, 성장을 돕는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한다.

엄마! 하늘은 왜 파랗요?



'아이들이 묻고 노벨상 수상자들이 답한다' 베티나 슈티겔 엮음 / 나누리 옮김

달리 / 1만 4천원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22가지 석학들, 어린이 눈높이에서 다시 보게

문은, 그저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아이들의 상상력에 날개를 달고, 성장을 돕는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책에 나오는 질문은 모두 심오하다.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 '왜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가야 하나요?' '하늘은 왜 파란가요?' '물은 왜 아픈 걸까요?' '왜 1+1=2 인가요?' '나는 왜 어떤 일을 잊어버리고 어떤 일은 기억하는 걸까요?' '지구는 앞으로 얼마나 오래 될까요?' 등 이 책에 나오는 22

가지 질문은 보통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지만, 그 어느 것도 어른들이 쉽게 대답하기 힘든 주제들이다.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이들과 함께 읽을 것을 권하고 싶다.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독일 유력 일간지 쾰프 도이체 차이퐁이 연재해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이후 독일에서 단행본 판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했던 화제적이다. 쾰프도이체 차이퐁은 정기적으로 노벨상 수상자들을 초대해 아이들이 흔히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 답해주도록 요청했다.

아이제 로메이의 독특한 삽화가 어우러진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 책은 질문하기를 즐기는 아이들 뿐 아니라 아직 질문하는 법을 잊지 않은 어른들, 적어도 공평한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은 사람들 모두를 위한 책이다.

도서출판 이레와 영진닷컴이 공동주최해 설립한 아동 출판사 '달리'에서 만든 첫 책이다.

이은자 기자 elee@buddhapia.com

"네티즌이여 정보판별력 키워라"



2002년 11월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체 가구수의 약 70%에 가까운 수치라고 한다. 하지만 발전된 기술 여건 만큼 인터넷 이용의 질적 측면도 함께 향상됐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전문학적 비용이 투입됐을

따라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유저는 적극적으로 그 기술의 효용을 관찰하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불온한 의도에 맞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만약 이를 게을리 하면 수많은 네티즌들은 소수의 거대자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신의 돈과 개인정보가 담긴 쿠키파일들 건네주고 물건을 사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인터넷 매체에 대해 비판적이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터넷을 떠도는 수많은 정보의 진위여부에 대해 스스로 판별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정보는 기존의 신문이나 책과 달리 아무런 통제나 검열없이 생산되고 유통된다. 따라서 인터넷을 떠도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으로 읽고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거미줄에 걸린 웹'

로라 J 구락 지음 / 강수아 옮김

코키토 / 1만 2천원



이 책은 인터넷을 위해 어떤 기술을 익혀야 하는지 또는 지금의 신기술은 무엇이며 어떤 방법이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등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술 서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책이 다루는 것은 수많은 정보와 광고, 그리고 남무하는 흑색선전과 극단적 권력 등 온갖 정보가 뒤섞여 있는 인터넷이란 매체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네티즌들은 어떤 권리의식과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하며 거짓 정보를 가려내는 식별요령은 무엇이며, 디지털 공간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문제와 사이버스페이스와 실제와의 관계들이 이 책의 중심적 주제들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대한 철학적 해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인터넷을 위해 어떤 기술을 익혀야 하는지 또는 지금의 신기술은 무엇이며 어떤 방법이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등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술 서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책이 다루는 것은 수많은 정보와 광고, 그리고 남무하는 흑색선전과 극단적 권력 등 온갖 정보가 뒤섞여 있는 인터넷이란 매체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네티즌들은 어떤 권리의식과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하며 거짓 정보를 가려내는 식별요령은 무엇이며, 디지털 공간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문제와 사이버스페이스와 실제와의 관계들이 이 책의 중심적 주제들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대한 철학적 해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구락은 인터넷이란 매체를 대하는 네티즌들의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사이버리터러시(Cyberliteracy)'라는 개념으로 표현한다. 이 말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는 키보드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스크린의 정보를 읽어내는 등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뜻한다. 하지만 저자가 의도하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테크놀로지가 사회와 문화에 끼치는 영향과 그 상호작용에 대해 이해하고, 비판적 견지에서 정보의 진위를 판별할 줄 아는 네티즌들의 전체적인 능력과 자질을 가리킨다.

구락은 이 같은 능력을 갖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으로 정보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요구한다. 그 이유는 테크놀로지는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끊임없이 자본가와 권력자들에 의해 기능과 방향이 왜곡되거나 조종되기 때문이다.

의 삶과 사회를 어디로 인도하든 그 책임은 기술이나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이 책의 주제가 시기적절하고 참신하지만 한 가지 단점은 지나치게 정보의 소비자를 사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은 쌍방향성이기 때문에 정보의 소비자가 곧 생산자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깨어있는 정보의 소비자로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정보를 생산하고 건전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정보 생산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점에

인터넷 정보에 대한 비판적 태도 강조

하이테크 부작용도 결국 인간의 책임

서 구락은 정보의 생산자가 가져야 할 가치관과 태도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다루었다는 평을 면할 길이 없다.

결론으로 이 책의 원제 'Cyberliteracy'는 디지털 코드와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새로운 기술과 문화환경 속에서 그에 상응하는 이용자의 권리의식과 대응 방식을 사이버리터러시라는 개념을 통해 구체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판에서는 이 중심적 개념에 대한 적절한 한국어 번역을 내놓지 못함으로써 전체적 내용을 하나의 개념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동어반복에 가까운 책제목은 원제의 함축적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홍성재영/프래머 김세희www.buurns.org 운영자

<거미줄에 걸린 웹(원제 : Cyberliteracy)>은 미국의 저명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로라 J 구락 쓴 책이다. 저자는 거부할 수 없는 테크놀로지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네티즌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을 도입해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사이버 디지털의 세계에 대처하려고 이야기 한다. 이 책의 목적은 인터넷 시민들이 바로 인터넷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의사있는 인터넷 행태를 돕는데 있다.

'영혼의 도시 라싸로 가는 길'

알렉산드라 다비드 넬 / 김은주 옮김

다비서 / 1만 8천원



"알렉산드라는 유럽인임에도 산스크리트와 불교철학에 정통하며, 여행지에서 만난 티베트인들과 아무 불편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능숙하게 티베트어를 구사

佛 여성구도자의 티베트 여행기

운남성-라싸-강체에서 8개월간 모험담

할 줄 아는 거의 유일한 여행자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그녀가 라싸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이다."

제14대 달라이 라마인 텐진 겐초는 20세기 초반 서양인으로서의 최초로 티베트 라싸로 들어가는 데 성공한 프랑스 여성 알렉산드라 다비드 넬을 가르켜 이렇게 말했다.

<영혼의 도시 라싸로 가는 길>은 알렉산드라 다비드 넬이 1927년 발표한 티베트 여행기다.

프랑스의 문헌인류학자이자 언어학자이며, 여행가였던 알렉산드라는 17년 우리나라를 방문해 합천 해

인사와 금강산 유점사 등지를 여행할 정도로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등의 문화와 미지의 정신세계를 탐험하고 연구하는데 열정을 쏟았다.

알렉산드라는 이 책에서 중국 운남성에서 출발해 라싸에 이르는 여정과, 라싸에서 두 달 동안 체류한 뒤 영국 통상부가 있던 강체로 향하는 여정, 달 동안의 모험담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그때까지 티베트는 외부세계와의 교류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배국인 영국이 철저한 쇄국 정책을 펼치던 터라, 그녀가 티베트를 여행하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당시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철저한 경계를 뚫고 이 여행에 성공하기 위해 알렉산드라는 탁발 승려 중인 티베트의 무식한 시골 노파를 세를 하며 3천 킬로미터나 되는 멀고 먼 길을 걸어서 여행했다. 시킨 지방의 한 사원에서 알게 된 아래 양아들로 삼고서 출근 동행을 했던 리마승 아를 용연과 단둘이서 변변한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떠난 여행이었지만, 오히려 이러한 설정 덕분에 다비드 넬은 티베트 여러지방의 생활상과 풍습, 신앙 등을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티베트 문화를 사냥인의 비판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고자 했던 알렉산드라와, 주술사의 손자로 태어나 티베트 사원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한 옴덴의 시각차를 짚어보는 것도 이 책을 읽어가는 재미 가운데 하나다.

이은자 기자

한글대장경 봉안은 부다피아외환카드로...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7년만에 318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합시다.



* 장경각은 사찰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부다피아카드 신규 발급과 대장경 봉안 불사를 동시에...

부다피아외환카드로 사찰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부다피아외환카드 신규 발급 1장으로 대장경 1권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 현대불교신문사와 외환은행의 제휴카드인 부다피아 외환비자카드 신청 실적으로 사찰에 한글대장경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사찰신청도 부다피아 외환비자카드에 500명이 가입하면 한글대장경1책(4백77만원)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0명이 가입하면 장경각(보급형)도 함께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현대불교카드사업단(02-725-1132)으로 문의 바랍니다.